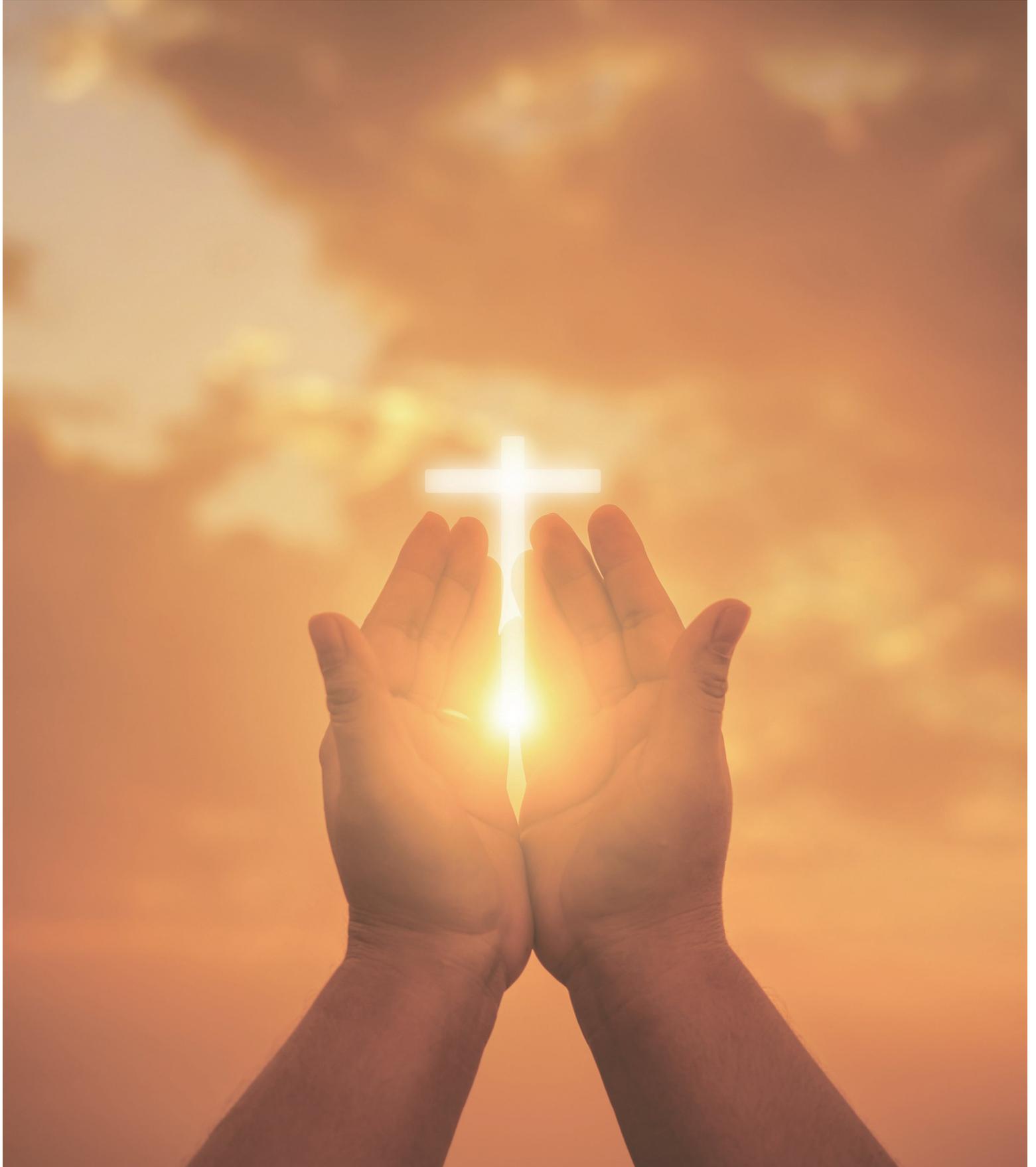




연중 제6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오늘날의 나병환자 - 코로나 확진자

제가 근무하는 복지관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 역학조사관이 파견되었습니다. CCTV로 동선을 파악해 밀접 접촉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되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공개된 확진자의 동선에 복지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었고 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두렵지만 나로 인해 복지관발 확산, ○○성당발 확산의 일호가 되는 것이 더 두려운 현실입니다. 죄를 지은 범법자가 아님에도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카드 사용내역, CCTV 추적을 통해 나의 모든 동선이 드러나고 나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밀접접촉자들은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외국에서 입국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외국에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구 신부님들도 외국에서 들어오면 자가격리를 합니다. 산청성당 관할에 교구 소유의 집이 있어 그곳에서 대부분 자가격리를 합니다.(지면을 빌려 여러모로 마음 써 주시는, 가끔 저와 형제로 착각하는 산청본당 주임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하늘에서 내린 형벌로 저주받은 모습이에요(레위 13,34) 죽음으로 향하는 상태(욥기 18,13)였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고 공공장소나 사람들의 모임에 나 타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다가오면 자신이 '불결한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레위 13,45-46). 나병환자들은 자가격리가 아니라 지역격리를 시켜 마을에서 떨어진 진영에 머물게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산청성심원과 고흥의 소록도는 접근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에게 다가와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는 나병환자를 피하거나 혐오하지 않으시고 연민의 마음으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길이 지저분해져요. 옷이 더러워져요. 차가 지나가면 물이 튀어요." 눈이 녹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봄이 와요." 아이는 눈이 녹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녹으면서 계절이 바뀐다는 시간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가봐"라는 남편의 대답은 정답이지만 아내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아내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탓이 아님에도 혐오와 회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나병환자들을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치유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족으로 vaccine(백신)은 라틴말 vacca(암소)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신축년辛丑年 소띠의 해를 맞이하여 코로나가 극복되기를 바라봅니다.



최태식 필립보 신부 |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장



제 1 독 서 레위 13,1-2,44-46
 화 답 송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제 2 독 서 1코린 10,31-11,1
 복 음 마르 1,40-45

주일 진례

더 큰 사랑의 길: 나의 내면에서 시작하십시오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20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전의 열정은 식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의무감 때문에 성당에 다니고 있어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데, 좀처럼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절에 가면 참 자아(眞我)를 찾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곤 하는데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참 자아(the true self)를 찾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국 트라피스트회 수도승이자 작가인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 1915~1968)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는 영적인 삶이란 인간의 진정한 자아의 삶이요, 내적 자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적 자아의 불길이 종종 방치되어 불안과 무의한 걱정의 잣더미 아래에 질식되어 있곤 합니다. 영적인 삶은 삶의 물질적 필요에 대한 즉각적인 만족을 향해 있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을 향해 방향 지어져 있습니다.”(인간은 섬이 아니다, 머리말) 머튼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세속적 행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 내면에 관상(觀想, contemplation)의 씨앗을 심어 주셨는데, 어떤 이는 이 씨앗이 싹트고 자라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면 다른 이는 아직 씨앗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자신의 내적 자아가 깨어나고 그 자아를 하느님 현존에 머물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본래의 자아를 회복하는 여정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주신 본래의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관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관상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느님과 사랑으로 일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랑이신 하느님과 깊은 영적 일치 체험은 유한한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을 성장시켜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면 안에 ‘이미’ 주어진 사랑의 본성이 깨어나 더 크신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성장해 사랑이 되어가는(Becoming Love) 여정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영적인 성장은 ‘사랑의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에페 4,15-16)

영적으로 성장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성전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만 하고, 계명을 잘 준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삶은 사랑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현실에 충실합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과 같이 내어 주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본래 낙원에서 사랑이신 하느님과 일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자신만을 사랑하려던 인간의 교만은 낙원에서의 사랑의 일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진정 본래의 자신이 됨으로써 이 낙원을 회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분의 사랑과 하나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 자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거짓 자아와 경험적인 자아에 집착하는 마음을 치워내면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본래의 자아, 악의 영역이 침범할 수 없는 본래의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아(眞我)를 찾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아도 결국은 무아(無我)임을 깨닫게 되며 모든 얽혀 있는 관계(인연)로부터 해탈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구도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의 자아를 잃어버림은 자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초월적 자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아의 부서짐과 더 큰 사랑의 길은 함께 가는 친구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을 닮은 따뜻한 공동체 여좌동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중고등부 봉사단 '사나래'

'사나래'는 '천사의 나래'라는 뜻을 가진 여좌동성당 중고등부 봉사단 이름이다. 교구 반석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아 만들었다. 중고등부 학생들 15명으로 구성하여, 성당 근처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봉사가 시작되었다. 옹기종기 모여 조를 짜고 청소할 곳을 정해서, 집게며 쓰레기봉지를 챙겨 성당을 나선다. 한 주일 학교 교사는 사나래 봉사단이 마치 '예수님의 군대'처럼 너무나 멋지고, 성큼성큼 골목을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기도 하다고 했다. 길거리에 여기저기 버려진 담배꽂초, 과자 봉지, 빈 음료수 캔, 공사 현장에서 내버린 파이프 등등을 쓰레기봉지마다 가득가득 담아서 성당으로 의기양양 돌아오는 청소년! 사나래 봉사단 아이들은 횡수를 더해 갈수록 더 단단해졌다. 처음에는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하고, 집계에 손이 짝혀 멍이 들기도 하고, 여좌천에서 발을 헛디뎠더니 물에 빠지기도 했다. 경험이 쌓이니 아예 봉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봉지에 분리수거를 하고, 화단의 나무 틈 사이로 숨어 있는 쓰레기, 돌 밑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주워오는 베테랑이 되었다. 부모들로 구성된 교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중고등부 학생들은 많은 활동을 하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가정사목국의 생명사랑 공모전에도 응모하였다. 학생들을 3모둠으로 나누어 포스터와 표어를 한 작품씩 만들었다. 교리 시간 짬짬이 작품을 만들며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함께 나누었다. 그 결과 2등 '생명상'을 받았고, 기쁨을 크게 나누었다.



성당 재건축 속에 피어난 작은 기적

2013년 당시 사목회에서 기획관리분과장을 맡았던 형제는 기적을 깨달았다고 했다.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며 예산을 2억 중반으로 계획하였으나, 하느님의 성전을 보다 좋게 꾸미자는 의견이 많아 예산은 급기야 4억 원이 넘게 불어났다. 본당 적자를 우려하여, 교무금이 1억 3천만 원 정도의 작은 본당에서 4억 원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무리라고 신부님과 사목회장에게 건의하였다. 신부님은 "본당 재건축 공사는 주님의 사업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사목회장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신부님 방침에 따르세요."라고 같은 말을 했다. 그 예언처럼 성당 어르신, 형제자매들의 값진 헌금이 모여 작은 기적을 보게 되었다. 거기다, 신부님은 부족한 예산을 메우려 인근에 있는 본당을 돌며 신자들에게 기타 연주와 노래를 들려주고 도움을 청하였다. 성당은 멋있게 재건축되었고, 돈만으로

성전을 짓겠다던 세속적인 생각에 많은 신앙적 변화를 주었다. 하느님만 믿고 엄청난 사업을 추진한 사목 위원들과 아낌없이 건축기금을 낸 신자들의 합작품이었다. 사무장은 성당이 너무 허름해서 혼인이 있을 때면 참 민망했는데, 멋지게 재건축하고 나니 혼인성사하기 멋진 성당으로 거듭났다고 기뻐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이 깃든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성령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여좌동성당 본당주보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이므로 진해지역의 모든 프란치스코 회원들의 모임인 베드로형제회는 여좌동성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본당 설립 후 연이은 1979년 11월에 7명의 회원으로 창설되었다. 명예회원들이 내는 월 정액과 매월 둘째 주일 불우이웃 돕기 2차 헌금의 일부, 독지가들의 후원금, 회원들의 비밀 헌금으로 운영된다. 2014년부터 고마운 독지가가 매월 50만 원씩 후원하고 있어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찾아 경제적인 지원, 독거노인 돌보기, 반찬봉사, 복지시설과의 연계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실행한다. 2013년에 시작된 '사랑 나눔 한술밥'은 미사가 끝난 후 순식간에 빠져나가던 신자들 걸음을 멈추게 하고, 외로운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웃으며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여좌동성당의 소중한 일이다. 봉사자들의 노고로 성 프란치스코의 '사랑 나눔' 정신이 음식 향기로 피어오른다.

본당주보 1면 글쓰기 릴레이

2016년부터 진행한 본당주보 1면 글쓰기는 일반신자들에게 힘들기도 했지만, 많은 결실을 낳았다. 일상에 안주하고 타성에 젖어 소극적이었던 신자들도 글을 쓰면서 주인정신을 가지게 되고 신앙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본당 내의 신심단체나 각양각색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소개하며, 본당 공동체의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 감동적이거나 역사의 기록에 도움이 되는 다채로운 글들도 많았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당주보로 1979년 1월 5일에 설립된 여좌동성당은 2019년 40주년을 맞았다. 성 프란치스코 축일 10월 4일에 가까운 주일에 본당의 날 행사를 크게 치렀다. 여러 단체와 가족, 개인이 장기자랑을 하고, 성가대에서는 음악회도 열었다. 많은 물품 빨랑카와 사목회장단에서 준비한 기념품으로 풍성한 잔치를 펼쳤다. 여좌동성당에는 3개의 구역과 16개의 소공동체, 그리고 구역 외 신자들로 작지만 따뜻한 공동체이다. 역사도 길지 않지만 많은 사제와 수도자를 배출하여 현재까지 11명의 사제와 10명의 수도자, 1명의 수도회 출신 사제와 휴학 중인 신학생이 있다. 이제 50년을 향해 나아가며 역사를 정리, 기록하려는 여좌동성당은 본당주보 1면의 살아있는 신자들의 글들이 한몫을 해낼 것이다.





기억할 선종 사제
김재석(요셉) 신부
1987년 2월 18일



교구장 동정

정의평화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

일시: 2월 16일(화)
장소: CBCK

본당사목방문

일시: 2월 18일(목)
본당: 하대동/ 평거동

지구장 본당방문

일시: 2월 17일(수)
본당: 망경동/ 칠암동
일시: 2월 18일(목)
본당: 회원동/ 상남동/ 봉곡동
옥봉동/ 금산/ 신안동
일시: 2월 19일(금)
본당: 완월동/ 월남동/ 월영

교구/본당

교3 피정

일시: 2월 20일(토) 13:00~21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주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정(중독과 회복)
강사: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준비물: 필기구, 미사 준비(봉헌금), 세면도구(수건, 간편한 복장(따뜻한 옷), 텀블러, 마스크)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교리교사 동계피정

일시: 2월 27일(토) 14:00~28일(주일) 14: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주일학교 교리교사
주제: 하느님 안에서의 삶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피 주십니까?"(시편 8,5)
신청: 2월 16일(화)까지
참가비: 6만 원
(교구사목비 면제 본당 3만 원)
준비물: 마스크, 개인컵, 필기도구, 세면도구, 주일 봉헌금 등
문의: 청소년국 055·249·7051~2
※선착순 50명으로 제한합니다.

가정사목분과위원 연수

일시: 2월 27일(토) 14:00~17:3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대상: 본당 가정사목분과위원
주제: 가톨릭 안에서 바라본 性이란?
교육비: 1인 1만 원
신청: 2월 19일(금)까지
(※ 당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계좌번호: 농협 301-0003-8497-31
(재)마산교구-입금 시 입금자명(본당)으로 기입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3

복음화분과위원 연수

일시: 2월 28일(주일) 10:00~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각 본당 복음화분과위원
준비물: 필기도구, 미사 준비
참가비: 2만 원
신청: 2월 19일(금)까지 (FAX- 055·249·7024)
계좌번호: KEB하나 160-890012-14304
(재)마산교구-입금 시 '본당+복음화분과'로 기입(예:양덕복음화분과)
문의: 사목국 055·249·7021~2

상반기 소공동체장 교육

일시: 3월 2일(화) 10:00~15:30
장소: 상남동성당
대상: 신임 소공동체장
준비물: 필기도구
참가비: 1만 원
신청: 2월 19일(금)까지 (FAX- 055·249·7024)
계좌번호: KEB하나 160-890012-14304
(재)마산교구-입금 시 '본당+신임'로 기입(예:양덕신임)
문의: 사목국 055·249·7021~2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정기총회

일시: 2월 18일(목)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민화위 055·261·8201

교구 평협 회장단 회의

일시: 2월 19일(금)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가톨릭 트래블
올레길 425Km 24박 25일
제주교구 성지 7곳 순례 일정
289만원(2021년 3월 2일/ 매월 출발)
070-4086-0207 www.catravel.co.kr

Enjoy your life
AV Team (주)AV팀 Since 2005~
avteam.co.kr
음향, 영상 시스템
설계/ 시공/ 방문 점검 및 컨설팅
김지훈 바로로 010-3243-5655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굴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평협 055·249·7114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2월 기도 모임

일시: 2월 22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수도회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 성소자 만남 및 상담

일시, 장소: 전화 면담 후 결정
대상: 국·내외 전교와 봉사에 관심있는 39세 이하 미혼여성
문의: 김 엘리사벳 수녀 010·4732·8247

기 타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수강생 모집

개강일시: 3월 9일(화)
정규과정(주간/야간) 주 1회, 14주간
대상: 음악에 관심있으신 분
문의: 051·519·0474~5

2021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추가): 3월 31일(수)까지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로템의집 직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상담원 3명, 사무원 1명
접수: 2월 15일(월)까지,
전자우편(rothem03@hanmail.net) 및 방문 접수
제출서류: 응시원서(로템의집 블로그 공지 사항에서 다운로드)
문의: 055·292·4747
▶구체적 사항은 로템의집 블로그(blog.naver.com/rothem0303),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 채용정보 참조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3/ 7007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3@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2월 20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2월 20일(토) 15:00	칠암동성당	010·6608·3217	-

제15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감:** 2021년 9월 30일(목)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위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노아의 아들들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터전을 잡은 곳에 대해 성경의 저자는 침묵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는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음직한 상상의 장소로 순례를 떠나겠습니다. 노아는 그곳에서 포도밭을 가꾸는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창세 9,20). 포도로부터 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발효된 포도를 먹고는 술에 취한 나머지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었습니다. 알몸으로 누워있는 아버지를 처음으로 목격한 것은 둘째 아들인 함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조상으로 소개됩니다. 그는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렸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 겹옷을 집어 들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 드렸습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고서 그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였습니다. 함에게 내린 저주는 이렇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제 형제들의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셈에게는 “셈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라는 말로, 야벳에게는 “하느님께서서는 야벳에게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시고 셈의 천막들 안에서 살게 해 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어라.”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결국 함은 셈과 야벳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한 것인데, 도대체 함이 행한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함이 잘못하였는데 왜 그의 후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일까요?



베르나르디노 루이니 Bernardino Luini, <노아를 놀리는 함> 1510~1515

먼저 성경에서 ‘알몸을 보다’는 말은 ‘성적 관계를 갖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레위 20,17-21 참조). 그렇다면 함이 아버지와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뜻일까요? 혹은 함이 노아의 아내와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의 잘못은 성적인 것이 아니라 아들로써 아버지의 영예를 지켜주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현재의 문맥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함이 그런 저주의 말을 들을 만한 잘못을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잘못은 함이 하였는데 왜 저주는 가나안이 받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아버지 대신 아들을 벌함으로써 그 형벌을 더욱 혹독하게 여겨지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은 실제로는 가나안이 아니라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거나 실제 범인은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혹은 이 저주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가나안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고대 랍비들은 ‘함은 노아가 넷째를 낳지 못하도록 거세를 하였다. 그래서 그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창세 10,6 참조). 이 이야기에는 가나안족에 대한 이스라엘의 적대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족의 조상인 함을 근친상간 혹은 성적 문란의 죄를 범한 이로 고발함으로써 그 민족을 비하하는 이야기인 동시에 그 민족을 주의하라는 경고성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이 온 땅으로 퍼져 나갔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언제나 셈, 함, 야벳의 순서로 소개되지만 창세기 10장에서는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그 후손들이 소개됩니다. 이는 그 뒤에 소개될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후손들의 수는 70이며, 이 숫자는 당시에 고대 근동 전역으로 퍼져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자손들의 명단은 인류는 처음부터 서로 인척 관계를 가지며, 모두 하느님의 돌봄을 받는 가족이었다는 확신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극복하고 본래의 친인척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종종 구원의 상태를 묘사할 때 온 인류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느님을 예배하는 한 가족이 되는 모습으로 제시합니다(이사 2,1-3; 43,9; 60,1-3 참조).